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31~7/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인물로 보는 한국 선 사상사 : 한권으로 읽는 한국선의 역사	정운스님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7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9	우주의 중심 : 카일라스	김규현/이상원	마음여행
5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10	역주 유마힐소설경	김호귀	중도기획

책세상

박물관 안서 박물관 밖을 본다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

김정학 지음 / 곰곰나루 펴냄 / 2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난 일들을 모아 놓은 곳, 박물관. 그런 과거를 증명하는 공간인 '박물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과거'뿐일까. 책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에서 박물관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새로워진다.

"박물관이 지나간 과거를 모두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과 작은 전시장 속에서 길지 않은 시간을 거니는 동안, '과거 없이는 우리는 미래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그들의 울림에 나는 무릎을 쳤다."

책은 현재 대구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 한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 호주의 박물관 36곳에서 느낀 것들을 모은 것으로, 현직 박물관장의 '박물관 바라보기'이다. 작은 디자인은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 형식의 박물관 답사기이지만 큰 디자인은 김정학의 박물관 스토리텔링이다. 곳곳의 박물관에서 '무릎을 쳤던' 순간들을 적고 있다. 또한 김 관장은 그렇게 세계 각지의 박물관 현장에서 무릎을 치며 얻은 생각들로 우리 박물관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한다. 그 모색의 텍스트이기도 한 책은 단지 박물관을 생각하는 텍스트를 넘어선다. 박물관 안에서 박물관 밖을 본다. 곳곳의 박물관이 소장한 '과거'들과 나란히 걸으며 박물관 밖으로 나온다. 다양한 과거의 인물과 역사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깊이와 의미들을 꼼꼼하게 읽어준다.

책은 세계의 박물관이 '눈으로 보는(Eye On) 박물관'에서 '체험하는(Hands On) 박물관'으로, '이해하는(Minds On) 박물관'에서 '느끼는(Feels On) 박물관'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중에서 '마인즈 온' 박물관이 대세라는 사실을 일러준다. 그리고 이를 국내 박물관의 현장과 연계해 비교하면서 현실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박물관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배우고 즐기는 제3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세계 36곳 박물관을 18개 주제로 나누고 두 개의 박물관을 서로 비교해 가며 관람할 수 있게 한 집필 방법도 신선하다. 사진가 김선국이 동행하며 촬영한 사진도 현장 분위기를 실감나게 한다.

책이 소개하고 있는 36곳의 박물관 중에는 지역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진천 종박물관 · 루쉰博 등
세계 36곳 박물관 스토리
다양한 인물과 역사 소개
"박물관 개념 · 역할 변화"

도 있고, 전쟁이나 학살, 갈등, 교육, 종교, 민속 또는 삶과 죽음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각각 대표하는 박물관도 있다. 오프라인 박물관은 물론이고 온라인 박물관이나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욱 교감을 많이 하는 박물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이동하는 이색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박물관을 소개한다.

18개의 각 주제마다에는 뿌리깊은나무 박물관과 수오당의 관계, 정약용과 지석영이 쓴 어학교재, 청도 운문사의 새벽종송 소리, 추사 글씨의 다양한 흔적 등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김 관장은 박물관을 열심히 보러 다니다 교육박물관에 생각의 높이를 맞추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을 위한 박물관이라면 뭔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교육'이냐 '학습'이냐를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다르게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닿았다.



고판화박물관 소장 티벳 목판화 나한도 인출본.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체험학습도 '핸즈 온(Hands On)'을 넘어 '마인즈 온(Minds On)'으로 향하는 시대다. 고고학(考古學)보다는 고현학(考現學)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대다. 말하자면 박물관에 대한 개념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분야사 연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통섭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현장도 마땅히 그곳의 박물관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역사를 통해 존재감을 깨닫고 책임감을 드러내며 정의감을 키우는 공간 또한 박물관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 책으로 소개하는 36곳 박물관들은 만든 이의 의지와 지키는 이의 생각과 찾는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릎을 쳤던 곳이라 꼭 한번 방문을 권한다. '온고지신', '법고창신', '구본신참'이란 막연한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신(新)'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 관장은 박물관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박물관들에게도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며,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눈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학 관장은 1959년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년 동안 한국과 미국 등에서 방송사 프로듀서로 일했고,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총감독, 국악방송 한류정보센터장,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대구교육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새로운 우리 역사와 문명



인류 창세 세계 최고 밝해문명사

고준환 지음 / 동쪽나라 펴냄 / 1만8천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류 창세 세계 최고 밝해문명사〉가 출간됐다. 책은 한민족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가 인류사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새로운 역사의 구성과 분석으로 밝히고자 한다.

책의 핵심은 "우리나라 역사는 주변 강국의 역사조작과 사대식민사학자들의 역사 왜곡으로 찬란한 '민족국가 반만년 대륙의 영광사'가 '2천년 반도의 굴종사'로 잘못 기록되고, 지금도 식민강단사학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잘못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과 함께 우리 민족(한겨레 배달겨레 하느님족, 동이족, 광명족, 태양족, 백두산족, 한민족, 조선족, 고려인, Korean, 천신족, 밝해족, 백의민족, 아리랑족, 밝달족)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황하문명, 인더스문명, 나일강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등에 앞선 인류세계 창세 최고 문명으로서, 이 4대 문명과 고대 마야, 잉카문명, 고대 그리스 로마문명 등에 영향을 준 '밝해문명(太陽光明文明)'을 창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장과 제5장에서 '밝해문명'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고 제6장에서는 밝해문명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밝(붉)해문명'은 '밝은 해'인 푸른 하늘의 빛나는 태양(靑天白日,밝해)을 생명양육생멸의 근원으로 삼는 문명이다."

우리 민족의 세계사상 시원적이고 최고(最古)이며, 최고(最高)의 문명을 '붉해문명' 즉 '밝해문명'이라고 명명하여 정의하고 있는 책은 우주와 나에 관한 '참나의 깨달음'을 전제로 인류창세 최고문명으로서 밝해문명을 신인 나반과 아만의 백두산 강림을 비롯하여 발해연안문명, 파미르고원 마고산성에서 시작된 마고선녀의 재창세와 그 시원역사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 청천백일의 붉(알)사상에서 비롯된 밝은 해(태양)인 밝해문명을 시작한 우리 상고사는 시원역사를 이어 환국, 밝달국, 민족국가, 단군조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밝해문명국 후사로 이어졌다고 적고 있다. 왕검단군은 실존의 우리 국조이고 단군조선이 실사이며, 〈환단고기〉 등 고기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4대 · 고대 문명 앞선
'밝해문명' 우리민족이 창출
"왕검단군 실존의 우리국조"

"서기 2000년 7월 3일 중국 천진일보에 의하면, 러시아 고고학 박굴단이 티벳 서쪽 환국 중심지 하나였던 수미산(수메르산)이라고도 하는 해발 6,714m의 히말라야의 아버지 카일라스산 주변지역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피라미드를 비롯한 100여개의 세계 최대 피라미드군을 발견했다고 한다. 〈중략〉 피라미드의 원조는 고대 환국인 환단조선시대 창세문화다."

우리가 만들고 이끌어온 밝해문명은 세계 각지로 전파되고 여러 형태의 위대한 문명으로 다시 이어지는데, 각지에서 발굴되는 유물과 유적들에서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우리는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문명의 주인공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자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



국문학자의 손길이 닿은, 적절한 현대어 선택과
운율을 고려한 번역! 늘 옆에 두고 경구처럼 읽고 되뇌면서
삶과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가르침!

이종기 옮김/양장/360쪽/값 18,000원

명나라 4대 고승 감산대사의 주석!

수능엄경통의 1·2



불교의 철리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행자들의
필수 지침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종지'로 원융회통한,
"교법의 준칙이요 선종의 정안正眼!"

감산 덕청 지음/장순용 역주/양장/1권 27,000원/2권 25,000원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제5대 뻰첸라마의 가르침!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실천 수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이자 안내서!

뻰첸라마 롭상예쎄 지음/법장 옮김/양장/496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